

대지와 더불어 사는 사람의 역사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지질공원과 주변 지역에서는 약 3 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땅은 풍족한 사냥터와 낚시를 할 수 있는 강과 호수, 채집을 할 수 있는 삼림, 경작 가능한 토양을 제공하며, 1,000 년 넘게 인간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현재 시카오이의 역사는 혼슈에서 홋카이도로 많은 일본 혼슈 사람들이 이주해 온 20 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선주민 문화의 흔적이 마을 이름이나 랜드마크 이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누 문화

예전 아이누 사람들은 홋카이도의 호수, 강 주변, 해안 부근의 고탄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어와 송어를 잡고 육지에서는 수렵 채집을 했습니다.

시카오이의 초기 이주민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홋날 초(町)가 되는 아이누 마을이 10 곳 존재했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이 진행되며 일본 중앙정부에 의해 토지 제한과 문화 동화정책이 도입되면서 많은 아이누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당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누 문화는 이런 정책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홋카이도 각지의 지명과 랜드마크의 이름에 아이누어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카오이(鹿追)’라는 지명은 ‘사슴을 사냥하는 곳’을 뜻하는 아이누의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착민과 새로운 삶의 방식

19 세기 후반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홋카이도 개척에 착수해 섬 밖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땅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이주민들은 농업용으로 토지를 개척하고 개간하는 대가로 한 구획의 토지를 받았습니다. 시카오이로의 이주는 1902 년부터 1920 년까지 이어졌으며, 4,000 명 이상이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톱, 팽이 등 기본적인 도구로 나무를 베어 밭을 개간하고 말에게 쟁기를 끌게 하는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1921 년과 1928 년에 철도가 깔리면서 농업과 임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1959 년에 시카오이초가 탄생했습니다. 20 세기 후반에는 현대적인 농기계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며 농업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현재 시카오이초의 주요 산업인 농업에서는 유제품, 소고기, 메밀, 보리, 감자, 사탕무 등 다양한 농산물이 일본 전국 각지의 소매점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시카오이의 초기 이주민들이 겪은 고난과 혹독한 환경은 7 살 때 부모와 함께 시카오이로 이주한 화가, 간다 닛쇼(神田日勝, 1937 년-1970 년)의 작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다 닛쇼 기념 미술관에는 그가 그린 유화와 스케치가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